불교계, 대통령 초청 국가기원법회 추진

종단협,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 기원 주제로

4월 중순 서울 내 호텔서
국민평화 · 행복사회 기원코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봉행
문화공연 · 지화 등으로 장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계가 4월 중순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기원하는 대통령을 초청 법회를 추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2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불기2562년 제54차 정기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원법회 추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국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협은 4월 17~20일 중 서울시내 호텔서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법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회는 문화공연과 기원법회, 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범패 · 화청 등 불교의식을 강조하고 전통장엄등과 지화 등으로 장엄될 예정이다.

회의서는 종단협 산하단체 가입 규정을 강화하고, 협회 위상에 맞는 불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하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설립일 만 3년 이상 △불교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운영규정이 갖춰져 재정자립을 이룰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 변경의 건에서는 상임이사가 천태종 前 총무부장 월도 스님에서 현 총무부장 월중 스님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감사를 맡은 종단인 (재)일붕선교종과 총화종, 원융종서 각각 총무부장 원공 스님, 교육원장 법만 스님, 총무부장 홍법 스님에 대한 감사 추천이 보고됐다. 2017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9억5624만9157만원, 특별회계 5억4345만5295원으로 결산됐으며, 최근 화마를 입은 법화종 통영 안정사의 요사채 복구를 위해 협회가 적립해둔 긴급재난구호기금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계 역사와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세미나 · 포럼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설정)도 같은 날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 조직 발전방안을 논의할 출 · 재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 설정 스님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사장 홍파 스님과 사무총장 향운 스님, 미륵종 부원장 혜륜 스님, 손안식 · 이건호 · 장세동 · 백명숙 이사가 참여한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한일불교협의회에 재가이사님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불교는 사부대중인 만큼 재가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소위원회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획을 내 한일불교 교류 발전에 힘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협의회 신임이사장으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재임됐다. 또한 지난해 속리산 법주사서 개최키로 했다가 남북정세 악화로 연기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오는 6월 25~28일 열린다. 특히 올해는 양국 청소년 교류를 위해 국내 종단소속 학생부 또는 종립학교 학생을 방학기간에 4박5일간 일본으로 보낼 예정이다.

회의서는 총지종의 부회장 종단 승격 요청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총지종은 회의에 불참했다. 감사 혜륜 스님은 "총지종이 공문을 보내는 등 부회장 종단 승격을 요청했는데 사무처는 이를 무시하고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장 홍파 스님은 "안건은 요청한다고 다 채택할 수 없다. 총지종은 협의회에 공헌한 바가 없고, 참여도도 좋지 않다"면서 "총지종의 부회장 승격 요청은 이사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승가대 새 총장 성문 스님 임명

학교법인 승가학원, 만장일치로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에 조계종 前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설정)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112차 이사회를 열고, 제7대 총장에 성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대학평의회는 총장후보로 원행 · 성문 · 원종 스님을 추천했으나 이날 원행 스님은 후보직을 사퇴했다.

성문 스님은 고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굿고계를 수지했다. 제10~12대 중앙종회의원,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중앙승가대 1기생으로서 4~6대 동문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튿날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승가대학 존립이 한국불교 존립이라고 생각하고, 뜻을 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인 조계종과 태고종. 최근 양측 집행부는 조계종 총무원서 만나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 좌측이 조계종 집행부, 우측이 태고종 집행부다.

조계-태고종, "일불제자로서 화합을"

총무원장 간 환담, 미래지향적 자세 필요에 공감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정공방을 주고받으며 좀처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양 종단 행정수반들이 만나 화합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집행부 예방을 받고, 일불제자로서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자세로 불교발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우리나라 불교계 종단이 수십, 수백여 개다.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좋지만 신앙집단은 함께 모여 수행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갈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분열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해관계부터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에 편백운 스님은 '불교 대화합'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종단들이 화합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불교 대화합' 선언을 서로의 임기 내에 이뤄보고 싶다"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화엄경〉과 원융회통 사상을 강조하면서 "일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자리이타라는 정신에 충실하면 화합은 어렵지 않다. 과거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접근하자"고 덕담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관계 두 개의 갈대단이 의지하여 서있듯

*삶은 관계의 반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시작하여 가족, 친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웃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의 윤회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혼자이면서도 이웃과 함께 해야만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톰 행크스)는 비행기 사고로 조난당해 무인도에서 힘겨운 4년을 보내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약혼녀 캘리의 사진이 들어 있는 목걸이를 볼 때마다 살아야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웃이 있어야 자비심도 생기고 이웃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하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불편하면 무인도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관계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며 행복의 요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팀은 1938년부터 72년 동안 724명의 남성 인생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연구대상은 두 개의 집단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과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 456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상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수만 페이지의 빅데이터에서 얻은 분명한 메시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산다. 고독은 매우 해롭다. 관계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다. 갈등관계는 오히려 해롭다."

하버드 대학교 인간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은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탐욕, 인색, 분노, 저항같은 부정적 감정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관계가 불편할 때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고, 나를 내세워 저항하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지옥이 극락으로 바뀝니다.



그림 · 조향숙
주제 · 소통 / 모노타입 판화

*잡아함경에 의하면 두개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하고 서있듯 삼라만상 두두물물(森羅萬象 頭頭物物)은 상의상존(相依相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삶의 뜰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상의상자(相依相資) 관계 속에서 활짝 웃는 행복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화엄의 꽃장엄은 연화장세계이며 광명의 극치입니다.

원만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바라밀수행(육바라밀, 십바라밀)의 첫 덕목 '보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일평생 유마의 삶을 꿈꿔온 한 재가 수행자의 공부처!

숫타니파타 독후감 '청년 붓다'를 만나다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온전히 담겨 있는 초기 경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숫타니파타」에는 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수행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재가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김광하 저/국판/256쪽/값13,800원

자기 안의 선지식
선은 방석 위에 가둘 수 없다!
선이 존재해야 하는 곳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시공간이다.
禪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현실 속의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옛 선사들의 삶과 일화를 오늘에 투영시켜, 선의 참된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김광하 저/국판/312쪽/값14,8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부 경전 중 가장 오래되어,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 박이오 역/신국판 양장/368쪽/값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